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조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김 형 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문재인 정부가 정치 실종, 경제 부진, 외교 고립, 사회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이른바 '김·민·조 왜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민주노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금지된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저자세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여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1차 남북 정상 회담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 한다'(83%)가 '잘 못한다"(7%)를 압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5월 조사에선 긍정(45%)이 거의 반 토막 났고, 부정(43%)은 6배 이상 많아졌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굴욕적이고 시혜적인 평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다. 정부가 지난 5일 국제 기구의 대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은 반응은 차갑다. 한국 갤럽 조사(5월 14~16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54%)이 '인도적 지원은 유지'(38%)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무모함이 도를 넘었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수천 명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주주 총회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렀다.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멈췄다. 비록 이틀만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이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관련 부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 투쟁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는 권력과 강자를 향한 저항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익 단체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한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원칙과 결기로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실패와 조직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단 10명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에 연루되어 모두 교체됐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었지만 문 대통령은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조 수석 경질론을 일축했다. 최근 조현옥 청와대 인사 수석이 물러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가 있어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사과했다.

그동안 조 수석과 함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의 당사자로 비판이 제기됐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유임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공평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래야만 기강이 선다. 국민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위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작아져서는 안 된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신성한 권위가 작아지고 무너지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종교칼럼

다시 유월에 서서

장 헌 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호헌 철폐, 전두환 독재 타도" 32년이 되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 때 외침이 지금도 생생하다. 1980년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은 7년간 지난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1987년 전두환은 4·13 조치를 발표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때 광주가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의지로 성직자(신부·목사)들이 단식을 시작했다. 필자는 당시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원으로서 1987년 4월 27일 단식을 함께 했다. 당시 성명서 제목은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 기도를 시작하며'이다. "성서적 진리와 신앙 양심에 따라 이 땅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직선제 요구를 몸으로 체험하며 기도와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현 정권은 4·13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물러갈 것과 미국은 한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도와 단식을 했다.

필자는 단식 열 하루 째가 되던 1987년 5월 7일 설교를 했다. 고린도전서 15:12-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부활과 역사 부활'에 대해 설교했다. "총칼로 광주 민중을 학살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4·13 발언은 다시 우리가 의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다. 부활에는 '일어난다' '봉기'의 뜻이 있다. 구원과 해방의 프락시스(실천)다. 오늘 우리는 광주에서 바로 여기 YWCA 6층에서 단식으로 일어섰다. 이것은 전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인천으로, 서울로 번졌다. 87년 5월은 민주주의 생일이 될 줄로 믿는다. 국민에게는 주권을, 이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다. 그 불은 결코 방화를 하며 각목과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오는 불은 결코 아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며, 이 땅에 평화를 갈망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뜨거운 가슴의 불이다. 이 뜨거운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지며 이 땅에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에서 시작된 성직자들의 단식 기도회가 전국으로 파급되면서 마침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어서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이한열 등 수많은 열사의 고귀한 죽음과 목숨을 건 투쟁, 군부 통치를 종결지으려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마침내 6월 항쟁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6월 항쟁은 깨어 있는 시민의 비폭력 실천이자 시민의 자주 자치의 실천이었으며 이는 시민의 대동 세상으로 연계됐다. 그리고 대동 정신은 광주 민중 항쟁의 정신으로 계승됐다. 비폭력의 저항과 주먹밥으로 함께하는 대동, 헌혈로 함께 한 생명 나눔의 공동체 정신이다. 바로 '광주다움'의 요체다.

필자는 최근 그 광주다움을 전해 준 한 사람을 기억한다. 5·18 전도사로 불리는 고 서유진 님이다. 그는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이후 박정희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쳤고 1980년 광주 민중 항쟁의 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일을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로 미국 망명 길에 올랐을 때 민주화 운동 세력들과 함께 한국의 군사 독재 참상을 고발하고 광주 민중 항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백악관 앞 시위 등을 펼쳤다. 이후 민주 정부 시절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27개 나라에 이르는 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비슷한 군부 독재 국가들을 찾아가 광주의 5·18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인권 헌장' 선언과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토록 오로지 광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는 2019년 5월 16일 미국 자택에서 별세(77세)했다. 그 분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지난 6월 1일 광주 망월동에서 '세상 어디라도 그대 머문 곳이 광주였습니다'라는 주제로 추모제와 안장식을 거행했다. 그때 필자는 '5월 증언자'라는 추모시를 바쳤다.

"광주 어디 있는가/ 꽃만 봐도 서러운 그날/ 눈물이 앞을 막아 빛을 볼 수 없을 때/ 상처와 아픔 분연히 떨치고/ 홀연히 우리 앞에 나타난/ 민주 평화 인권을 일깨워 준 당신/ 아아 그대 이름/ 서유진/ /… 미완성의 혁명을 숙제로 남기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간/ 광주정신/ 그대의 이름 /서유진 // 다시 유월에 서서, 저 유월의 바람으로 통일의 그날까지 광주는 진행형이다."

기 고

원효사 집단 시설 지구 이젠 자연의 품으로

정 용 상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장

무등산은 해발 1187m, 전체 면적 7만 5425㎢,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심에 위치한 세계 유일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이다.

무등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모습으로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 우수한 생태 경관과 멸종 위기 야생생물 수달·하늘다람쥐, 으름난초 등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체계적으로 자연 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도립공원 시절인 2012년 2278종에서 2019년에는 4066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진정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1966년 주둔을 시작한 무등산 정상부(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방공포대의 이전, 장불재, 중봉 등에 설치된 방송 통신탑의 이전 및 원효사 공원마을 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지역의 이주는 무등산의 우수한 자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현안 과제로 아직도 남아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심층부에 위치한 원효사공원마을 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지역은 1982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 즐비하고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효 계곡 주변 상가들의 무분별한 상행위는 공원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관계 기관, 환경 단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첫 발로 국비 예산 243억 원을 들여 원효사 집단 시설 지구 이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 내 영업 행위를 하는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이주시키고 노후 상가 건축물을 철거 후 복원할 계획이다. 이주 사업은 주민, 사찰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었고, 사업 시행에 반감이 있던 사찰의 이해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광주시와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상가 주민들의 이주 후 철거가 완료되면 기존 상가가 있던 14만 2806㎡의 부지는 국립공원 자생 수종과 자연스런 천이(遷移)를 통해 복원되어 무등산 핵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완충지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주 사업을 통한 생태 복원은 국민들에게 무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쉼터가 되어 국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다.

앞으로도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무등산 내 인위적인 시설물을 철거 후 복원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전남 과학 기술 인력·인프라 보강 절실하다

전남의 과학 기술 혁신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인적 자원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8년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16위로 최하위였는데 이후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 9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역량 평가는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주요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데 네트워크(6위)와 환경(4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상승 배경에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등 공공 기관들의 후광 효과가 컸다. 이들 기관 덕분에 산·학·연은 물론 기업·정부 간 협력을 평가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및 지원 제도를 평가하는 '환경'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혁신 역량 상승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 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인 자원(15위)과 활동(13위) 지표에서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 연구원 수와 인구 만명 당 연구원 수 등 인적 자원은 1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렇다 할 특허·연구 개발(R&D) 기관이나 투자 기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와 환경은 갖춰져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혁신 역량을 키울 소프트웨어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혁신 기업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랭킹 30위 이내의 지역 대학이 전무한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따라서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자치단체들이 손을 잡고 인적 자원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전남 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 사회 안전망 구축을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은 엊그제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등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 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이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괴로워하던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은 B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데이트 폭력이 광주·전남에서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등 데이트 폭력은 2016년 254건, 2017년 497건, 2018년 575건, 올해(지난 4월 기준) 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구속은 2016년 9명, 2017년 7명, 2018년 12명, 올해 1명 등에 그쳤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 발생 건수는 경찰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가해자인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사랑싸움'으로 여겨지는 등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안전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부가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 강화를 천명했음에도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여성을 소유물이나 성의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비뚤어진 남성 중심주의와 성차별 의식도 여전하다.

수사기관은 몰카 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에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제보·신고도 있어야겠지만, 당국의 효율적인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다뉴브의 꽃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뉴스가 TV에 보도될 때마다 강가에 놓인 꽃들이 클로즈업되고 있다. 33명의 한국 관광객이 탄 유람선의 사고 지점 주변에 헝가리인들이 변을 당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조화(弔花)들이다. 국화와 장미가 주를 이뤘는데, 이중 가장 많이 눈에 띈 것이 하얀색의 '마거리트'라는 국화과의 꽃이다. 헝가리인들이 한국인의 정서를 고려해 하얀 마거리트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화나 헌화용으로 쓰이는 꽃은 고인을 추모한다는 마음은 같지만 주된 품종은 동서양이 상이하다. 서양인들은 고대로부터 장미가 영혼의 재생을 상징한다고 여겨서 묘지 주변에 심거나 장례식에 사용했다. 이에 비해 동양에서는 조화용으로 국화가 주로 사용됐는데, 국화가 이승과 저승을 잇는 영원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꽃으로는 붉은 양귀비가 사용되기도 했다. 1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남부 지역 들판에 흔하게 피는 꽃이 양귀비였다. 이곳 전투에서 전우를 잃은 군인들이 들판의 양귀비꽃을 꺾어 시신 위에 놓고 넋을 기렸다고 한다. 이 들판이 '플랑드르'인데, 캐나다 출신 참전 군의관인 '존 맥크래'가 1915년에 쓴 시 '플랑드르 들판에서'로 인해 양귀비꽃이 1차 대전 상징물로 자리잡았다. 이 시는 '우리는 영영 잠들지 못하리, 비록 플랑드르 들판에 양귀비꽃 자란다 하여도'라는 구절로 끝난다.

다뉴브강의 전설과 관련된 꽃에는 물망초가 있다. 어느 날 한 연인이 다뉴브강가를 걷다가 강 건너편에 핀 연보라 꽃을 발견했다. 꽃을 갖고 싶어하는 연인의 마음을 눈치챈 남성이 강으로 뛰어들어 꽃을 꺾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물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가 꽃을 연인에게 던지며 마지막에 한 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이야기이다. 수많은 소설과 예술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은 장면이다.

동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라는 다뉴브강,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을 잊지 말아야 할 추모의 장소가 됐다.

/채희종 사회부장·부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체 육 부 220-0633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